

학교청소년이 지각하는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 혜 경* · 김 경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삶은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며, 이러한 관계의 양적·질적인 측면은 개인의 적응은 물론 개인의 독특한 정체감 형성과 진정한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즉 사람들은 타인들과의 인간관계가 만족스럽고 조화를 이룰 때 보다 완성된 인간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성장발달의 저해는 물론 부적응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정명자, 1986; Gazda, 1973).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 현상이 점차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위 '집단 괴롭힘(이지메)'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집단 따돌림은 또래관계에서 건디기 어려운 고통이며 이러한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사례가 심각하게 보도되면서 점차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60대말 처음으로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연이어 스칸디나비아와 노르웨이도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이 발생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는 영국, 일본, 미국등지에서 학생사이의 폭력이 일반 대중

의 관심을 받고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다각적인 시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Olweus, 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피해학생들의 학업부진, 등교거부는 물론 학생들의 심각한 심리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현상이다. 특히 청소년기에 집단 따돌림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비현실적인 개념과 다인에 대한 부적절한 개념들을 포함하여 부적절한 자아감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 이러한 자아감각에는 자신과 세계에 대한 왜곡된 사고가 내포되어 있으며, 대인관계를 서로 연결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단절 또는 와해시키는 방법으로 나가게 하는 불안과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김선미와 이강오, 1993; 노혜숙, 1986; 이희재, 1995; 임병식, 1977; 정용진, 1988).

이렇듯 학생들 사이에서의 집단 따돌림 현상은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개인을 대상으로 인생의 전 과정을 포괄하여 간호를 제공해야하는 간호사는 이러한 집단 따돌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체계적이고 올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단 따돌림 현상을 대상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함으로써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피해학생들이 겪는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잘 극복할 수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박사과정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조교수

있도록 돕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간호중재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집단 따돌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 2) 집단 따돌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유형별로 특성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 3) 집단 따돌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명명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집단 따돌림 (Bully)

: 두명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혹은 특정 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II. 문헌 고찰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또래집단은 청소년 각자가 스스로를 수용함은 물론, 타인으로부터 수용과 인정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자기이미지 획득이나 진로선택, 취미생활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명자 등, 1996).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행어처럼 퍼져있는 이른바 '왕따(집단 따돌림)' 현상은 이러한 또래관계의 영향을 역행함으로써 이젠 위험수위를 넘어선 실정이며 피해학생들의 피해정도 역시 전문적인 치료를 요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왕따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까지 개발·사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집단 따돌림의 문제는 학교생활에서 단순히 있을 수 있는 일로만 여기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이진영, 1999).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청소년들의 심리·사회적 정체감확립 과정에서 오는 좌절감, 왜곡된 방식의 우월성 추구, 나아가 극복하기 어려운 자아중심성, 도덕성 발달장애 등이 자신의 불만요소를 공격적으로 표출하게 하는 중요한 잠재적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가족구성원들간의 갈등과정에서 희생양이 되어 본 경험이 있거나 약자

를 괴롭히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더욱이 경쟁적이고 최고 지상주의, 결과중심주의의 삶의 가치체계가 가져오는 비인간화 현상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일탈행동을 가속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다(원호택, 1991; Corey, 1996; Weiss, 1973).

따돌림이 집단화되는 이유로는 집단압력에 의한 동조현상과 몰아(deindividuation)현상을 들 수 있는데 몰개인화라고도 불리는 몰아현상은 집단내 개인들이 종종 '집단내에 빠진 것' 처럼 행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때 사람들은 개인으로 주목되지 않고 구성원들도 더 이상 하나의 개인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몰아 상태에서는 집단내 책임감의 분산으로 개인적 책임감은 최소화된다. 흔히 몰아 상태에서는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 쉽게 표출된다(구본웅, 1997).

따돌림의 피해자가 보이는 개인내적 특성으로는 자기중심적이거나 소심하고 부정적이며 열등의식을 지니고 있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점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따돌림의 가해자가 보이는 특징으로는 권력과 지배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고 적대감과 공격성, 충동적 성격이 강함을 들 수 있다(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Bandura, 1973; Olweus, 1973; Patterson, 1982).

노르웨이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을 비롯한 학교폭력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15%가 폭력학생이거나 희생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웨덴 역시 이와 유사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르웨이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공격 및 폭력성 정도도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Olweus, 1984).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생중 48.1%가 1~2회정도 친구를 따돌린 경험이 있으며 대상자의 30%는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를 따돌리는 주된 이유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에게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경우 자신이 따돌림당한 이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로부터의 집단 따돌림이 악순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할만한 것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22.1%가 친구를 따돌린 경험도 있으며 따돌림 당한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들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면 외로움, 분노, 억울함, 자책감과 같은 감정을 느끼며 따돌린 친구들에 대해서는 복수심, 증오, 피하고 싶은 느낌을 가지고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분노 감정이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을 당

한 후의 반응에 있어서는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거나,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는 등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키고 회피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생님이나 부모, 상담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극복하기 보다는 고민하면서 혼자 생활을 하거나(38.4%), 혼자서 묵묵히 참는(36.8%) 방식으로 대처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용태, 박한샘, 1997; 조은경, 박한샘, 1997).

또한 친구따돌림의 관찰자적 입장에 있는 학생들은 따돌리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반면,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불쌍한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막상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보면 위로하고 친구가 되어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보복당할까봐 두려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무시해 버리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태, 박한샘, 1997; Ekblad, 1986; Maccoby, Jacklin, 198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은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두렵고 괴로운 일이며 정상적인 학업 및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상담이나 간호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III. 연구 방법

1. Q - 표본의 구성

본 연구의 Q-모집단은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서적이 나 선행 논문, 잡지, 기사등의 문헌을 통한 자료와 초·

중·고등학생, 일반성인, 교사에게 집단따돌림에 대한 생각을 서면 및 심층면담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총 120개의 Q-모집단이 구성되었다. 이는 내용의 명확성과 중복여부, 타당성을 고려한 후 최종 31개의 Q-표본이 선정되었다.

2. P - 표본의 구성 및 Q-분류

P-표본은 1999년 5월부터 6월까지 본 연구방법을 이해하고 Q-분류가 가능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서울시내 초·중·고등학생 26명을 임의 표출하여 조사하였다.

Q-분류는 대상자에게 진술문 카드와 조사표를 주고 연구자의 설명에 따라 적극찬성(+4)에서부터 적극반대(-4)에 이르기까지 카드를 분류토록 하였다(표 1).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P-표본으로 표집된 26명에 대한 자료를 data file로 입력시켰다. 자료분석은 PC QIIANI,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분석(Q-factor analysis) 및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Q - 유형의 형성

집단따돌림에 대한 10대 청소년들의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5개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얻어진 5개의 유형은 집단따돌림에 대하여 같은

<표 1> 카드 배열 및 점수 부여

	-4	-3	-2	-1	0	+1	+2	+3	+4
	적극반대								적극찬성
카드수	2장	3장	4장	4장	5장	4장	4장	3장	2장
점수	1	2	3	4	5	6	7	8	9

<표 2> 유형별 Eigen value 와 변량의 백분율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Eigen value	5.5908	4.6341	2.2942	1.7237	1.5332
변량의 %	.2150	.1782	.0882	.0663	.0590
누적 빈도	.2150	.3933	.4815	.5478	.6068

의견이나 생각, 태도를 가진 대상자들로 묶여지기 때문에 각 유형 하나 하나는 각각의 특성을 설명하고 이해하게 한다. 분석 결과 나타난 5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60.68%를 설명하고 있다(표 2).

5개의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표 3).

<표 3> 유형별 상관관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 5
유형 1	1.000				
유형 2	-.034	1.000			
유형 3	.046	.345	1.000		
유형 4	-.131	.315	.126	1.000	
유형 5	.478	.094	.332	-.037	1.000

이들 각 유형에 분류된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자가중치(factor weight)는 표 4와 같다. 여기서 인자가중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가 속한 유형에 있

어서 전형적인 사람(prototype)임을 의미한다.

2. 유형별 분석

1) 제 1유형 : 해결형

유형 1은 초등학생 4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2명이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친구를 따돌려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유형 1에 속한 대상자들이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인 진술문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표준점수 $z = +1.97$)였고 다음은 '따돌리는 친구를 보면 화가 난다'($z = +1.9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면 동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z = -1.56$)였고 다음은 '따돌림을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참는 것이다'(-1.49)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표 5).

또한 유형 1의 특성은 이 유형이 나머지 다른 유형에

<표 4> P-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가중치

순위	연구 대상자 번호	인자 가중치	학년	성별	종교	따돌림 당한 경험	따돌린 경험
1	VAR 15	3.5932	중 2	남	불 교	무	무
2	VAR 17	2.4184	초 5	여	천주교	무	무
3	VAR 22	2.1827	초 5	남	불 교	무	무
4	VAR 25	.7693	초 6	남	기독교	1-2회	무
5	VAR 1	.6930	고 2	여	기독교	1-2회	1-2회
6	VAR 23	.6791	초 6	남	기독교	무	무
1	VAR 7	2.4050	중 1	여	천주교	1-2회	3-4회
2	VAR 12	1.8434	중 2	여	기독교	1-2회	1-2회
3	VAR 2	1.1386	고 3	여	기독교	무	3-4회
4	VAR 10	.9584	중 1	여	없음	3-4회	3-4회
5	VAR 20	.9472	초 6	여	없음	무	1-2회
6	VAR 21	.8479	초 5	남	불 교	무	무
7	VAR 5	.8355	고 3	남	없음	무	6회이상
8	VAR 26	.6705	초 6	남	기독교	1-2회	1-2회
1	VAR 8	1.7130	중 1	여	기독교	1-2회	1-2회
2	VAR 11	1.0095	중 2	여	기독교	무	1-2회
3	VAR 19	.9933	초 6	여	없음	무	무
4	VAR 3	.7978	고 3	여	기독교	무	1-2회
5	VAR 16	.7353	중 3	남	없음	무	무
1	VAR 4	.5800	고 3	남	천주교	무	무
2	VAR 6	.5673	고 3	남	불 교	무	무
1	VAR 18	1.1918	중 1	남	기독교	무	무
2	VAR 13	1.3836	초 6	여	없음	무	무
3	VAR 14	.9125	중 2	남	없음	무	무
4	VAR 24	.8225	초 6	남	기독교	무	무
5	VAR 9	.7802	중 1	여	없음	1-2회	6회이상

<표 5> 유형 1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 술 문	표준점수
24.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1.97
2. 따돌리는 친구를 보면 화가 난다.	1.93
28.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보면 보호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1.47
16. 따돌리는 친구를 보면 말리는 편이다.	1.41
29. 따돌림 당했을 때는 피하지 말고 대항하는 것이 좋다.	1.28
9. 따돌림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1.22
10.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버린다.	-1.00
13.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에 신경쓰는 편이다.	-1.00
23. 따돌림 당하는 친구와 가깝게 지내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다.	-1.02
4. 따돌림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이다.	-1.06
12.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아이는 따돌림을 당하기 쉽다.	-1.18
6. 따돌림을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참는 것이다.	-1.49
25.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면 통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1.56

비해 동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인 동의도가 높아 따돌림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을 보면 '따돌리는 친구를 보면 화가 난다' (차이 +2.134)였고 다음은 '따돌리는 친구를 보면 말리는 편이다' (+1.94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동의를 높게 보인 항목을 보면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면 통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2.577)였고 다음은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에 신경쓰는 편이다' (-1.602)순으로 제시되었다.

이같은 결과에서 유형 1은 집단 따돌림 현상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이며 따돌림을 당하는 이들에게 동정심과 측은한 마음,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따돌리는 친구에게는 분노심과 적개심이 내재되어 있고 객관적 입장에서 따돌림 상황을 경험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함으로써 가해자를 말리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은경과 박한샘(1997)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유사하나 실제 이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과감히 나서지 못하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도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 이

러한 상황을 회피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대조적으로 나타났다. 즉 유형 1의 따돌림에 대한 대처양상에 있어서 회피보다는 적당한 방법으로서의 대항이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제 2유형 : 관망형

유형 2는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초등학생이 3명, 중학생이 3명, 고등학생이 2명이었다. 이 중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명, 따돌려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7명이었다.(표 4).

유형 2에 속한 대상자들이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인 진술문은 '따돌림을 받는 아이는 따돌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z=+2.24)였고 다음은 '잘난 척하거나 튀는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해봐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z=+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2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따돌림은 선생님이나 부모가 나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z=-2.30)였고 다음은 '그룹활동이나 공동작업은 따돌림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z=-1.38)등의 순이었다(표 6). 이는 김용태와 박한샘(1997)의 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따

<표 6> 유형 2가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 술 문	표준점수
18. 따돌림을 받는 아이는 따돌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2.24
7. 잘난 척하거나 튀는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해봐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2.04
25.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면 통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1.84
12. 선생님의 총애를 받는 아이는 따돌림을 당하기 쉽다.	1.05
16. 따돌리는 친구를 보면 말리는 편이다.	-1.34
30. 그룹활동이나 공동작업은 따돌림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1.38
20. 따돌림은 선생님이나 부모가 나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2.30

<표 7> 유형 3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15.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일 것이다.	2.14
26. 따돌림을 주동한 아이들도 따돌림을 당해봐야 한다.	1.45
9. 따돌림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1.26
22. 따돌림 받는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도 전학을 가는 것이 좋다.	1.24
13.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에 신경쓰는 편이다.	1.23
25.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면 동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1.10
24.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1.05
8. 따돌림은 영화나 TV속의 폭력 장면을 모방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1.01
21. 따돌림을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호기심이 생긴다.	-1.41
4. 따돌림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이다.	-1.43
29. 따돌림 당했을 때는 피하지 말고 대항하는 것이 좋다.	-1.53
6. 따돌림을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참는 것이다.	-1.93

돌림 피해자에게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Olweus(1984)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여 자신과 관계가 좋지 않은 친구를 따돌림으로써 만족을 얻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유형 2가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2가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도가 높아 따돌림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을 보면 '잘난 척하거나 튀는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해봐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1.861)였고 다음은 '따돌림을 받는 아이는 따돌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1.526), '따돌림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이다'(+1.3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2가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동의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을 보면 '따돌림은 선생님이나 부모가 나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1.887), '그룹활동이나 공동작업은 따돌림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1.851)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서 유형 2는 따돌림을 받는 경우 이는 따돌림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며 따돌림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튀는 행동을 하거나 교사로부터 충애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도 따돌림의 원인이 된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자신이 미워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받으면 오히려 대리만족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유형 2의 객관적 대처에 있어서도 따돌림 현장을 목격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을 제지하거나 적극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소극적이고 관망하는 자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집단의 동조현상 혹은 몰아 현상이라 볼 수 있다(구본용, 1997). 또한 따돌림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모나 교사가 개입하거나 그룹활동이나 공동작업등의 수행은 따돌림 상황을 완화시키는데 비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Barone, 1994).

3) 제 3유형 : 갈등형

유형 3은 모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여학생이 4명, 남학생이 1명이었다. 따돌림을 당해 본 경험은 1명, 따돌려 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유형 3이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인 진술문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일 것이다'(z=+2.14)였고 다음은 '따돌림을 주동한 아이들도 따돌림을 당해봐야 한다'(z=+1.4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3이 가장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따돌림을 당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참는 것이다'(z=-1.93)였고 다음은 '따돌림 당했을 때는 피하지 말고 대항하는 것이 좋다'(z=-1.53)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표 7).

이와 같은 특성은 유형 3이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도가 높아 따돌림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을 보면 '따돌림 받는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도 전학을 가는 것이 좋다'(+2.286),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일 것이다'(+1.750)등의 순이었다. 반면 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동의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항목을 보면 '따돌림 당했을 때는 피하지 말고 대항하는 것이 좋다'(-1.922), '따돌리는 친구를 보면 화가 난다'(-1.504)순으로 제시되었다.

이같은 결과에서 유형 3은 학교생활에서의 가장 큰

<표 8> 유형 4가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 술 문	표준점수
7. 잘난 척하거나 튀는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해봐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2.01
5.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면 통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2.00
8. 따돌림을 받는 아이는 따돌림 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1.44
7. 따돌림의 대상은 밍보이는 아이보다는 부러먹고 괴롭히기 쉬운 아이이다.	1.42
1. 친구들이 따돌리니까 별 이유없이 덩달아서 따돌리는 것 같다.	1.15
3. 따돌림 당하는 친구와 가깝게 지내면 보복을 당할까봐 두렵다.	-1.15
1. 따돌림을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호기심이 생긴다.	-1.15
9. 따돌림 당했을 때는 피하지 말고 대항하는 것이 좋다.	-1.15
5.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일 것이다.	-1.71
4. 따돌림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이다.	-1.72

스트레스를 친구들로부터의 따돌림이라고 하였고 이와 같은 사고는 그들의 대처에서도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그들 역시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말이나 행동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따돌림을 당할 경우 대항하거나 참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학을 감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는 이규미 등(1998)의 조사와도 일치하며 또한 유형 3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따돌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며 따돌림을 받는 친구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반면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오히려 통쾌한 기분이 든다고 하여 자신 역시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에 대한 표현 방법으로 따돌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면을 엿볼 수 있었다.

4) 제 4유형 : 동조형

유형 4는 2명으로 모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따돌림 당하거나 따돌린 경험은 없었다.

유형 4에 속한 대상자들이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인 진술문은 '잘난 척하거나 튀는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해 봐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z=+2.01$)였고 다음은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면 통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z=+2.0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4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따돌림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이다'($z=-1.72$)였고 다음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일 것이다'($z=-1.71$)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표 8).

이와 같은 특성은 유형 4가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4가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도가 높아 따돌림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을 보면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면 통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1.873$), '따돌림의 대상은 밍보

이는 아이보다는 부러먹고 괴롭히기 쉬운 아이이다'($+1.760$)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4가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동의의 정도가 높은 항목을 보면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일 것이다'(-3.064),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1.563)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서 유형 4에 속한 이들은 따돌림을 받는 아이들은 그들 자신이 이에 따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으며 대개 따돌림의 대상은 약하고 힘이 없는 아이들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구본용, 1997; Olweus, 1973). 한편 유형 4는 교우관계에서 잘난 척하거나 튀는 아이들을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의 따돌림이나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친구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것에는 임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 유형은 따돌림 상황에서의 개입이나 적극적인 관심은 보이지 않으며 다소 방관자적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조은경, 박한샘, 1997).

5) 제 5유형 : 부정형

유형 5는 5명으로 초등학교 2명, 중학생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명, 따돌린 경험이 있는 경우가 1명이었나(표 4).

유형 5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인 진술문은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일 것이다'($z=+1.82$)였고 다음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z=+1.6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4가 가장 강하게 반대한 진술문은 '따돌림 받는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도 전학을 가는 것이 좋다'($z=-1.84$)였고 다음은 '따돌림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이다'($z=-1.61$)등의 순으로 제시되었다(표 9).

이와 같은 특성은 유형 5가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표 9> 유형 5가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 술 문	표준점수
15.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친구로부터의 따돌림일 것이다.	1.82
24. 따돌림 당하는 아이를 보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1.62
30. 그룹활동이나 공동작업은 따돌림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1.58
13. 따돌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말과 행동에 신경쓰는 편이다.	1.22
28.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보면 보호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1.09
21. 따돌림을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호기심이 생긴다.	-1.17
10. 누군가 괴롭힘을 당할 때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버린다.	-1.49
20. 따돌림은 선생님이나 부모가 나서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1.51
4. 따돌림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이다.	-1.61
22. 따돌림 받는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도 전학을 가는 것이 좋다.	-1.84

동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형 5가 다른 유형에 비해 긍정적 동의도가 높아 따돌림에 대한 태도상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을 보면 '그룹활동이나 공동작업은 따돌림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1.853), '열등감이 강한 아이일수록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따돌리려 한다' (+.986)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4가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동의 정도가 높은 항목을 보면 '따돌림 받는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도 전학을 가는 것이 좋다'(-1.567), '잘난 척 하거나 튀는 아이들은 따돌림을 당해봐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1.550)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서 유형 5에 속한 이들은 학교생활에서의 가장 큰 스트레스를 따돌림이라고 하였고 따돌림에 대한 자기보호적 행동을 하고 있으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에 대한 측은한 마음과 더불어 그들을 보호하거나 중재적 또는 해결적 방법으로서의 활동들을 모색하는 한편 부모나 교사의 개입보다는 그들 자신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한 해결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노혜숙, 1986; 이진녕, 1999).

또한 유형 5는 다른 유형에 비해 따돌림 현상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특성은 따돌림의 가해자나 또는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웅정이나 보복으로의 따돌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6) 유형간 일치항목

이상 5개의 유형간 일치항목은 다음과 같다(표 10).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집단 따돌림(일명 왕따)' 현상에 대한 학교청소년들의 주관성 파악 및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피해학생들이 겪는 정신적·심리적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으며 1999년 5월부터 6월까지 31개의 Q-표본을 이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임의표출한 26명의 P-표본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결과 5개의 유형으로 구조화되었다.

제 1유형은 해결형으로 따돌림 피해자에게는 동정심과 보호하고자 하는 강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따돌림 가해자에게는 분노심과 적개심이 내재되어 있고 따돌림 상황을 목격된 경우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따돌림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도 회피보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 2유형은 관망형으로 따돌림은 따돌림을 받는 아이에게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아이나 교사의 총애등이 따돌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따돌림

<표 10> 유형간 일치항목

진 술 문	표준점수
14. 잘못된 가정교육이 따돌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17
5. 사회전반에 걸친 도덕교육의 부재가 따돌림의 주된 원인이다.	-.33

에 대한 해결책으로 부모나 교사의 개입이나 그룹활동, 공동작업등은 따돌림을 해결하는데 비효과적이며 그들 자신 역시 관계가 원만치 않은 친구가 따돌림을 받는 경우 오히려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3유형은 갈등형으로 따돌림을 학교생활에서의 가장 큰 스트레스로 여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신의 태도에 있어서도 따돌림을 의식한 행동양상을 보이며 따돌림을 당할 경우 적극적 대처보다는 상황회피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따돌림에 대한 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있으며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반면 자신 역시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따돌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내면이 양가감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유형은 동조형으로 대개 따돌림의 대상은 약하고 힘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해결방법으로는 그룹활동등이 효과적이기는 하나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며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뒤는 아이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서의 따돌림이나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친구들이 따돌림 당하는 것에는 암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다.

제 5유형은 부정형으로 따돌림 현상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므로 따돌림의 가해자나 또는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아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복적 방법으로서의 따돌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학교생활에서의 가장 큰 스트레스를 따돌림이라고 하였고 따돌림에 대한 자기보호적 행동을 하고 있으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에 대해 그들을 보호하거나 중재적 또는 해결적 방법으로서의 활동들을 모색하는 한편 부모나 교사의 개입보다는 그들 자신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통한 해결이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져 있는 집단 따돌림 현상은 5개의 유형에서 나타난 바 각각의 구조적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유형별 특성은 학교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에 있어서 각기 다른 태도가 있음을 나타내며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가치관, 성격, 따돌림에 대한 경험등이 영향을 미칠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각 유형에 있어서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인식이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다소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혹은 객관자적인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과히 무시될 수 없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덧붙여 본 연구의 의의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해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다섯가지의 독특

한 주관적 특성을 발견한 것이며, 유형별 특성에 대한 분석은 인접학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유형별 특성을 토대로 한 개별화된 간호 중재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과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 구본용 (1997). 청소년 집단 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명자, 공수자, 이경순, 하양숙, 임영숙, 이정섭, 양수, 노춘희 등 (1996). 정신건강간호학(상권). 서울:현문사.
- 김선미, 이강오 (1993). 고등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정신간호학회지, 3(2), 54-73.
-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의 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대화의 광장.
- 노혜숙 (1986). 일부 여자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스트레스와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 (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현상.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 이진녕 (1999, 1월 18일). 초중고교생 4명중 1명꼴 따돌림 피해. 동아일보, 23면.
- 이희재 (1995). 한국계 미국인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경험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병식 (1977). 학교생활에 있어서 부적응 행동의 요인 분석. 성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자 (1986). 모범학생과 문제학생의 제상황에 대한 적응정도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용진 (1988). 여고생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산업체 특별학급 여고생과 인문계 여고생을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 박한샘 (1997). 친구따돌림에 대한 면접조사. 청소년대화의 광장.
- Bandura, A.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Barone, F. J. (1994). A comparative study of the perceptions of administrators, counselors, teachers and students regarding the existence of bullying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chool personnel response to bullying in the middle school.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EDD.
- Corey, G. (1996).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psychotherapy. Cole Publishing Co.
- Ekblad, S. & Olweus, D. (1986). Applicability of Olweus' aggression inventory in a sample of Chinese primary schoolchildren. Aggressive Behavior, 12, 315-25.
- Gazda, G. M. (1973). Human relation development: A manual for educator. Boston: Allyn & Bacon.
- Maccoby, E. E. & Jacklin, C. N. (1974). The psychology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 Olweus, D. (1973). Personality and aggression. In J.K. Cole & D.D. Jensen(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72.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New York:Wiley.
- Olweus, D. 이동진 역 (1999). 바로보는 왕따 - 대안은 있다. 서울:삼신각.
- Patterson, G. R. (1986). Performance models for antisocial boys. American Psychologist, 41, 432-44.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ss.: MIT Press.

-Abstract-

Key concept : Bully, Adolescence

The Perception of Teenagers on the Bully

- With the subject of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

Chung, Hae Kyung · Kim, Kyung 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eenagers' perceptions to bullie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types of Q-methodolog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classified in 5 types.

Type 1, which was the type geared forward solution, showed that they expressed a strong attitude of sympathy and protection towards the victim. However, they had harbored rage and hostile feelings against the assaulter. For example, when they witnessed the bully in action, they positively intervened in the situation.

Type 2, which was the observer type, showed that they thought the victims were to blame for their misfortune. Also, when a friend who was left out in the cold by his classmates, they were just watched without showing any special interest.

Type 3, which was the type of conflict, indicated that they believed that the both the victim and the assaulter should have responsibility. In contrast to the previous type, they had sympathy for the friend who was left out in the cold by his classmates, they had the dual feeling that intended to use the bully under the situation with his friend.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Type 4, which was the type of assenting, indicated that they assumed an indifferent attitude to the situation, while they implied assenting to the situation of the friend who had a bad relationship with them.

Type 5, which was the negative type, showed that they had the negative view to the situation of bully itself so that they did not recognize the bully as the method of revenge for whatever reas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bully increased the factor of stress to school life of the victim or assaulter, even in the subjective position. The perception of the bully should chan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s of people and it is necessary to study how to cope with the situations.